사탄지배를 벗어난 자와 안주하는 자

(계6:7~14)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탄지배를 벗어난 자와 안주하는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은 일곱 봉인 중에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일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각 인을 하나씩 읽으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 넷째 인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어렵지요.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눈에 들어오는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면,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앞에서 보았던 세 인 때와는 다르게 이름이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청황색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머무는 곳인데 지옥으로 통하는 공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가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심판이 완성되고 나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지옥의 대합실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지옥의 대합실이 사망이라는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말이 청황색이잖아요. 누르스름한 빛깔에 푸른빛이 도는 것이니까 시체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썩어가기 시작할 때에 노르스름하면서 푸른빛이 도는데, 이 청황색 말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육체의 죽음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었다고 해요.
이 말도 쉽지 않습니다.
8절에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 자체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가 죽는 것이 인간들을 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만으로는 죽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육체가 죽으면서 그 육체의 죽음의 뒤를 따르는 음부가 그 사람의 영혼을 꿀꺽 삼킬 때에 온전히 사망이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또 사망이 나오잖아요.
이 사망은 똑같은 사망이지만 헬라어로는 이 '사망'이 '온역'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워요.
좌우지간 사람이 죽게 되는데 검과 전쟁으로 싸우다 죽고, 흉년과 기근으로 죽고, 온역, 병들어서 죽고, 땅의 짐승들로써 죽는다는 것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이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하여간 인간이 죽는 모든 방법을 총망라한 말씀인 것이지요.
또 그 당시 로마 원형경기장 같은 곳에서 검투사들이 싸워서 지는 경우에는 배고픈 사자들을 풀어서 진 검투사들을 먹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연상해서 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사람이 죽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망라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땅 사분의 일의 권세'라는 부분에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땅 사분의 일의 권세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땅에 대해서 사망과 음부가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그 뒤를 따르는 음부가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망과 음부가 땅에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이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어서 풀려나오는 영혼을 음부가 뒤따라가면서 날름날름 받아먹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사탄이 하지 천사가 하겠습니까?
사탄에게 권세가 사분의 일이 주어졌다는데, 이 사분의 일 때문에 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아주 머리가 아픈 것이지요.
사분의 일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고 있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공중에 있는 마음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공중에 있는 마음을 지배하면서 땅을 다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공중을 지배하고 땅을 지배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흰 말 탄 자의 인에서 볼 수 있듯이,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과녁을 하나님 이외의 대상으로 과녁 삼게 함으로써 지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사랑한다. 자연을 사랑한다. 사업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의 과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것을 향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지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잘못 됐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걸 사탄의 지배체제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낄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 사랑도 잘못된 과녁입니다. 나라에 관한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과녁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둘째, 화평입니다.
'부부가 화평 한다. 부모와 자식이 화평 한다.'라고 한다면, 이 화평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집안이 화평해야 만사가 다 잘된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미덕중의 미덕이고, 끊임없이 칭송하고 기림 받아도 마땅한 덕목이 사탄의 지배체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마음으로 묶임이 없이 사람과 사람이 화평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탄의 지배체제입니다. 하나님과 각자가 먼저 묶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먼저 묶이는 화평은 야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게 사탄의 지배체제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체제인 것을 알라는 의미로 계시록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으심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 가려는 내가 죽고, 사랑의 과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과의 화평에 먼저 마음이 끌리는 상태에 대해서, 어린 양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려는 삶이 이루어지면서 사탄의 지배체제가 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셋째, 한 데나리온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행위인데, 이 인간의 행위가 이 세상에서 성취를 향하고 있어요.
'뭔가 이루겠다, 많이 모으겠다, 어떤 높은 자리에 가겠다,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다 사탄의 지배체제입니다.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마땅히 이렇다 할 성취를 위해서 뛰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지배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은 뭡니까?
6절 하반절에 “포도주와 감람유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타낸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성취해야 될 기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매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성취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성취해도 하나님을 다 성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성취하고 얻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취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거꾸로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세상과 땅을 지배하니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가 미치던 영역이 다 어린양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분의 삼입니다.
사분의 삼이라는 것이, 숫자상 100개 중에서 75개이고 사분의 일은 25개 같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형태로 땅에 대해 권세를 부리던 사탄의 권세가 다 없어지니까, 나머지 한 쪽이 남는데 이렇게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을 통하여 사탄의 지배체제가 무너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전혀 그 사탄의 지배체제가 무너지는 재앙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 세 가지 지배체제가 계속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역을 사분의 일의 영역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이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죽음을 당한 어린양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어떻게 죽입니까?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탄의 지배체제로부터 죽임 당한 어린양을 붙잡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그러면 이제 죽임 당한 어린 양을 붙잡고, 사탄의 지배체제를 벗어난 자들과 벗어나지 못한 자들, 못하는 자들, 못할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섯 째 인과 여섯 째 인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다섯 째 인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딱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본 것이고, 그 증거는 십자가 복음대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이 증거인데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순교자들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계시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하는데,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 성전 아래에 있던 번제단,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번제단 아래에 번제물의 피를 쏟았습니다.
이 점을 가만히 생각하면 '죽임을 당했다'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린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고 할 때의 도살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죽임도 있고, 가축을 죽인다는 도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과 연관시키면, 사람이 아닌 가축을 죽인다는 단어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말을 다시 하면, 어린양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 도살(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축처럼 번제물처럼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내가 가축처럼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아침마다 하는 번제의 말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십자가를 통해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마치 번제단에서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도살을 당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포함되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는 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진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음을 실현하고 사는 사람들 모두를 다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순교를 당한 사람도 포함이 되겠지요.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원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원한을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피를 갚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 양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 분과 연합하여 십자가 번제단에서 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무슨 원한을 갖느냐는 거예요.
이 원한의 내용을 알게 해주는 단어가 '거룩하고 참되신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속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제단에서 죽임 당한 어린 양과 함께 내가 도살을 당한 자로 여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분으로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인에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이라고 했고, 거룩한 존재를 사랑의 과녁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거룩한 존재를 사랑의 과녁으로 삼으면, 이제 더 이상 없을 만큼 좋은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이를테면 하나님을 과녁 삼지 않았을 경우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벌고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과녁삼아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합니다. 저 여자와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참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의 과녁으로 삼아서 내 마음 속으로 모셔 들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어린 양과 연합해서 도살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도살을 당한 자들이 제단 밑에서, 즉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좋았는데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아요. 계속 좋으니까 참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무슨 원한이 있다는 겁니까?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봅니다. 나도 땅에 거할 때에는 돈 많으면 좋은 줄 알았고, 저 여자, 저 남자와 결혼하면 좋은 줄 알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좋은 줄 알고 살다가, 그런 모든 바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거룩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이 없는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모래도 계속 좋도록 참되세요.
그런 상태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원한입니다.
어떤 원한입니까? 순교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스데반을 보면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에 대한 원한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원한, 주님의 원한, 순교자들의 원한은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몰라주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몰라주는 사람을 향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후 5장 8절에 “내가 지금이라도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라”
나를 죽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미쳐버릴 정도로 좋은 그 하나님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잘 알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취직에서 자꾸 떨어져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 한 번만 써보면 얼마나 좋은지 알 텐데!’라고.
다시 말하면 자식에 대한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 정작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그 원수를 미워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몰라주고 되지도 않을 것들을 향해서 과녁을 삼아가면서 기쁘겠다고 난리를 치며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야단을 치시고, 성전의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채찍을 치며 뒤집어엎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돈, 돈하면서 쫓아다니니 예수님 마음에 한과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들에 반해서,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체제가 무너지게 만드셨고, 이제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감람유가 끊임없이 제공됨으로써 밝아지고, 그 분께 가기만 하면 포도주로 상징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끝까지 땅을 사는 겁니다.
이 피조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다고 믿고, 이 땅 위에서 내 인생을 구축하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겁니다.
왕족들과 부자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룬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산아 무너져서 내 위에 덮쳐서 나를 깔아 죽여라”라고 합니다.
앞서 다섯 째 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당신을 드러내 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저들에게도 알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직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만나지 못한 채로 나에게 오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시간 동안 여전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땅이고, 그 위에서 자기의 성공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나를 덮쳐서 깔아 죽였으면 좋겠다는 후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의 세계가 마치 종이쪼가리가 말려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늘 위를 쳐다보며 살다보면, 재림 때에 일어날 이 세상이 내 마음에서 종이쪼가리가 말려 없어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려서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합니다.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모습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산 아래의 세상을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이 간 데 없는 거예요.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이렇게 사탄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난 자들이 세상은 간 데 없고,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그날그날 하면서 살아갈 때, 이 수평선상에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뛰던 자들의 마지막이 "내가 쌓아 놓은 돈아! 내 위로 무너져 내려서 그 돈에 깔려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후회할 일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탄의 지배체제를 벗어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자리에 있다고, 총독 자리에 있다고,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높이 쌓아올린 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위에 무너져서 여러분이 깔려서 멸망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되세요! 지금 사탄의 지배체제 아래에서 왕 되고 총독 됐다고 기뻐하지 말고, 제발 그 사탄의 지배체재에서 벗어나세요!"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세상이 종이쪼가리 말린 것처럼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 양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음을 당하며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마음이 가서 붙은 증거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마음이 붙은 모든 자들은 그 마음에서 세상이 간 데 없어진 것으로 증거가 확증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받은 육체의 죽음과 그 뒤를 따르는 음부에 의해서 진짜 죽음에 도달하지 않고, 사탄의 지배체제를 벗어나 거룩하고 참되신 분을 나의 기업으로 날마다 획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